

# 농촌계획에 있어서의 환경교육

이 용 환

서울대 농생대 농업교육과

## 1. 서 론

우리 나라는 작년 말에 일인당 국민 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 전체로는 이와 같이 발전하여 가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느낌이 있다. 농업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영농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인구가 감소되고 농업 분야의 위세가 국가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대하여 농업에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농업, 농촌 변화 과정은 이미 선진국에서 모두 겪었던 과정을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나라 농업, 농촌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2.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 필요성

우리는 농업,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농업, 농촌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인구가 줄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의 어느 나라를 보든 지간에 예외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농업도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합리화, 능률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농업 분야의 인구가 줄어지는 현상은 능률화, 합리화의 한 현상이다. 열 사람이 짓던 농사가 합리화, 능률화되어 감에 따라 점차 필요한 인력이 줄어 다섯 사람, 세 사람, 결국에는 한사람만 필요하게 되어 간다.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 비료, 농약 등과 같은 다른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영농 분야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그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하나는 농업 분야에 인구가 줄어지는 것은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인간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도시보다 농촌이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혜택, 취업의 기회, 자녀 교육의 기회, 등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건에 있어서 농촌이 도시보다 불리하였다.

농업 분야의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농촌의 인구는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농촌이 사람의 삶에 주는 여러 가지 여건을 도시보다 낮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인구의 강제적인 이동이란 생각할 수 없다. 농촌이 도시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촌 개발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한 생산의 증가, 그에서 오는 농업, 농촌인들의 소득 증대에 주안점이 두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농촌인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부족하다. 농촌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도시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의 청사진을 만들고 오랜 시간에 걸친 장기적인 개발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아울러 만들어져야 한다.

### 3. 지속적인 개발의 중요성

농촌 개발 계획의 핵심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요구되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이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처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도로, 주변 경관 등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농촌의 소득원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것은 농촌이 항상 도시보다 가난하다는 약점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소득이 1만불을 넘으면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바꾸어야 할 가치관도 많이 있다.

세계는 지금 지속적인 개발,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증산을 가져오기 위하여 농약, 비료, 에너지를 다량 투입하는 농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농사 방식은 재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왔다. 농약, 비료, 에너지의 다량 투입에 의한 증산은 필연적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그렇게 유발된 환경 오염은 내일의 생산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오늘의 증산이 반드시 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을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 있으려면 그에 필요한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오늘의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이다.

### 4. 인간 행동 개발을 위한 환경 교육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농촌 계획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와 관련 있는 각계 각 분야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인류를 부양하기 위하여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선이라는 생산 분야의 사고방식이나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등의 사고 방식이 환경을 중요시하고 지속적인 생산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자연은 정복이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촌 환경의

계획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철학의 전환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치관,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민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물리적인 시설만 한다고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준비가 없이 설치된 시설을 오래 유지될 수도 없고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의 발의와 계획, 사업 수행, 그리고 사업 수행 후에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개발되었을 때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환경 마인드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환경 교육은 지식의 전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태도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시설이나 환경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능까지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농촌 계획과 환경 교육의 접점이 생기는 것이다.